

정읍의 다양한 임산물 한자리서 만난다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인근 50억원 투입 '차향도원' 건립 차향문화관·차향가든 등 구성 더덕·두릅·구지뽕 전시·판매도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정읍의 차를 비롯한 다양한 임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차향도원'이 정읍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인근에 만들어진다.

차향도원은 2020년까지 50억원이 투입돼 1만4000㎡ 부지에 조성되며 차향문화관, 차향센터, 차향가든, 구절초 즉육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차향문화관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녹차, 구절초차, 쌍화차 등의 차와 더덕, 두릅, 구지뽕 등의 임산물을 전시·홍보·판매하는 공간이다.

정읍 녹차는 뛰어난 맛과 향으로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이름을 날렸다. 일본강점기에 국내 첫 대규모 차밭인 '천원도원'이 만들어진 곳이 정읍이기도 하다.

구절초는 12만㎡ 규모의 산내면 옥정호 인근 구절초테마공원이 한곡관광공사의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릇'에 선정되며 정읍을 대표하는 차로 발돋움했다. 차향센터는 이런 녹차와 구절초, 임산물



정읍지역 한 다원에서 녹차 만들기 체험 참가자들이 녹차원 따기를 하고 있다.

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체험하는 곳이며 차향가든은 차와 약초, 임산물을 재배하는 단지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차향도원이 조성되면 인근에 있는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시립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차향도원은 정읍의 차

와 임산물을 널리 알려 소비를 늘리고,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강진청자 가족놀이극 '돌아라 돌아라 뱅뱅'

7일 강진군 아트홀 무료 공연

강진군이 7일 아트홀에서 극단 아미와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인 청자를 활용한 가족 놀이극 '돌아라 돌아라 뱅뱅' <포스티> 공연을 펼친다.

돌아라 돌아라 뱅뱅은 강진청자를 흙, 불, 물로 해석해 무대예술화 한 놀이극이다.

물, 불, 흙의 나라, 흙의 나라, 물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보듯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표현하고 전체적인 음调和 리듬은 국악풍으로 구성된다.

극은 사라진 청자를 찾아 떠나는 시간과 공간의 여행으로 이루어지고 사건의 단서를 찾아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며 전개된다.

전통음악과 스토리를 배합한 색채감 있는 무대와 장면마다 펼쳐지는 아기



자기한 에피소드,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는 사건들, 3개의 나라에 얽힌 스토리에 교육적 메시지와 다채로운

상상력이 무대를 만들어낸다.

강진군 관계자는 "관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불놀이, 물놀이, 함께 하는 율동 등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무료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광주 김희권씨 '진도 별포마을' 대상 선정

제 1회 진도사랑 시 공모전

진도 어린이들의 바다 내음 가득한 삶의 풍경을 담은 김희권(광주)씨의 '진도 별포마을'이 제1회 진도사랑 시 공모전('여가 진도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진도의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광지로써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진도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위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6편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은 진도의 푸근한 품과 정겨운 정취를 담고 있는 이호철씨(인천)의 '여그'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진도의 바닷길을 열어주는 뽕할머니께 세월호 학생을 부탁하는 신화영(시흥)씨 '여가 진도여' 등이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음모한 작품 모두 진도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바람을 담고 있는 우수한 시가 많았다"며 "진도의 맛과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낸 시를 읽을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고창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제설기동반 운영

고창군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기동반을 운영한다.

제설기동반은 심원면, 아산면, 흥덕면 등이 주축이 돼 겨울철 폭설로 인한 마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제설기동반은 이 지역 트랙터 운전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군은 제설기동반은 중심으로 오는 2019년 2월말까지 집중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군은 심원면 상삼결빙구간 4개소와 제설작업구간 8개 노선 47km, 아산면 22개

구역 78km, 흥덕면 19개 노선 65km구간에 대해 제설기동반을 활용해 제설작업에 나선다.

군은 상삼 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배치하는 한편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적설량 정보제공자를 지정하는 등 동절기 제설계획을 수립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매년 주민을 위해 자기 장비를 활용해 제설기동반으로 활동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군산에 화학방재센터 설치 움직임

화학물질 누출사고 빈번하자 시의회 건의문 채택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한 군산에 신속한 대응과 예방점검을 위한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OCI 군산공장에서만도 지난달 21일 사연화구소 10 L 가량이 누출된 것을 포함해 2015년부터 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길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화학방재센터) 설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문에서 "2015년 6월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사업화구소가 누출돼 시민 불안감이 확산한다"며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과 전문화된 예방점검을 위해 군산에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군산의 화학물질 사업장은 122곳으로, 도내 화학물질의 60%인 3700여톤을 취급한다"며 "반면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화학사고 대처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30분 이내에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야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하며, 신속한 주민 통보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업 경쟁력 제고, 신속한 화학재난 대응을 위해 화학방재센터를 신속히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군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도 최근 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방재센터 설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주거복지인한마당 대회' 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순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주거복지인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거복지인 대회는 국토부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사업 추진사항과 개

선노력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한다.

순창군은 최근 3년 간 매월 500여 가구에 주거급여(전·월세비) 14억원을 지원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으로 27억 3000여만원을 들여 ▲수선유지급여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농촌장애

인 편의시설 개보수 ▲에너지효율 개선 ▲다중복지재단 농촌 집 고쳐주기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기타 취약계층 10가구에 임대보증금 1억4400만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순창군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남원시, 내년엔 무료 임대

리모델링 지원금도 확대

남원시가 농촌의 빈집을 고쳐 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한다.

그동안 시세의 반값에 임대했으나 내년부터는 무료로 빌려준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도 주택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건물주는 대신 5년 동안 집을 제공해야 한다.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장애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미관을 해치며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빈집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